

지역 소식통

김제시·한국종자연구회  
종자생명산업심포지엄 개최

김제시에서는 지난 3일(사) 한국종자연구회(회장 신현관)와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농업에의 연계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종자생명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종자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술개발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 첨단 생명공학 육종기법들의 현황, 역할, 실제 상업화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디지털 육종기술, 유전자교정기술이 미래 농업에 활용되기 위한 문제점 해결, 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AED)관리자교육 실시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7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차, 학교 및 공항, 철도역,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등 의무설치기관의 심장충격기 관리자 39명 및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 공공주택 등 자율설치된 기관의 심장충격기 관리자 31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도내 폐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폐교 포함 지원대상 확대 필요

지역 소멸의 상징인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9년 8월에 제정돼 운영 중이다. 전북의 폐교 수는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335개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각 273개에 기관 설립 21개, 자체 활용 23개, 대부 10개, 보존 6개, 매각 예정 2개 등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는 단열 저하나 결로 등 노후화돼 취약한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 코로내에 취약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폐교를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폐교의 경우 임법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 활용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에 폐교를 포함한 공공형 건물까지 확대하는 등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일 열린 14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건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군은 2010년 구 삼기초등학교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올해는 구 삼례중을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로 각각 조성하는 등 지역소멸의 상징인 폐교를 리모델링 후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박수를 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오상민·김승일·박두기·이병철·김주택 의원...시정질문에 대한지적·대안마련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3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김주택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오상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 2회 회의중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몇 번의 자문을 구했는지, 무슨 내용을 자문했는지와 이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위원회의 구성을 다문화화하고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김제시민과 공무원들을 위해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본 청년들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해 순회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체 등록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현을 요구하고 준공 지연에 따라 증가된 부대비용 부담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 분양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삽입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알고 있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김제시의 임명어린이 폐기물산업단지의 지면이 주시회사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 양을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복합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 이리랑 문화마을은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체험형 테마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었다며 추가적으로 이리랑 문화마을의 확대개발, 이리랑 문화관광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김제시가 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얼마인지, 향후 미분양지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 김제시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작성 과정 중 심의위원회 진행 여부와 의회에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든 결과에도 굳이 김제시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P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도한 예산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산단의 몇 %를 차지하는지, 매립용량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지역개발추진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김제시민과 지역업체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반려동물 등록, 이제는 필수”

### 완주군, 4천여마리 등록...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과태료 부과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반려동물 등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다. 현재 완주군의 반려동물에는 총 4000마리 가까이 등록돼 있다. 완주군은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300마리가 추가 등록됐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에 해당한다. 동물등록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3~4만원)가 발생하며, 집 근처 동물 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동물 상태 등 간단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자의 변경 시에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본인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신고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중인 반려견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호 중인 유기견의 입양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완주군청 농업축산과(063-290-3220)로 연락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

## 완주군, 만경강 무단경작지 행정대집행

### 낙시 금지 지역 지정 이어 불법 경작지 4개소 대상 원상복구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만경강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낙시 금지 지역 지정에 이어 불법경작지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는 등 연일 초강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 삼례읍 하리 15번지 회포대교~삼례교 일원의 불법경작지 4개소 450㎡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대집행에는 재난안전과 직원과 하천감시원 등 20여 명과 굴삭기 3대, 덤프 2대 등이 대거 동원됐다. 완주군은 철거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3개 기관 20여 명과 함께 불법경작지를 원상복구하고 불법경작물을 제거했다.

이 지역은 만경강 내 불법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데비날) 방치, 불법소각, 퇴비와 농약살포 등으로 하천환경과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돼온 곳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완주군은 행정대집행 현장 송달과 경작지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대해 지난 24일 현장 공식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실시

최근 돌파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층 및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후 접종간격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 18~59세 일반국민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 면역저하자 및 안면백신 접종

자는 2개월 후 추가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여 질병청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540-6254, 6255, 읍면동 콜센터)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또한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대리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